

# 與, 청와대 가세 친박-비박 갈등 고조...野, 비주류 거센 반발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후폭풍

추석 연휴 중 양당 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가 여야 정치권 모두를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난 30일 청와대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당내 계파 갈등 수준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합의안에 대해 비주류 측이 반발을 늦추지 않을 태세다.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날 하루 내내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계의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비공개 지도부회의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친박계 이경원 최고위원은 “아무런 당내 논의나 협의도 없이 야당 대표와 협의를 보는 게 당내 민주주의인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개 회의에서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중에서는 김재경 의원이 “안심번호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며 김 대표를 옹호했다.

반면, 홍문종 의원은 “안심번호제와 오픈프라이머리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말하는 등 친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까지 가세한 여권 갈등=청와대는 이날 새누리당 김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인심

## 靑 “김대표 공천 쿠데타” 직격탄

김무성 대표 “오늘까지만 참겠다”

박지원 “안심 못하는 불안심 번호”

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전혀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 ▲당 내부 논의 없는 결정 등 5가지 이유를 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처럼 청와대가 김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한 것은 총선 공천률이 김 대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내부에서 “김 대표가 공천 쿠데타를 하려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다. 오늘까지만 참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만만치 않은 계파 갈등=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당 혁신안에 이미 포함된 사안”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비주류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잘못이 있을 때 설명을 하면 ‘안심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러나) 안심번호는 안심을 못하는 ‘불안심번호’”라고 썼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확실한 복기(검증) 방법이 없으면 제도로 도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기자 ikpark@kwangju.co.kr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다툼이 계속된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모습을 김무성 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인단 규모·시기·투표 방식·전략공천 여부 이견

### 여야 ‘안심번호 공천제’ 동상이몽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혀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미한다.

‘안심번호’ 제도란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유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원선거, 무더기 착신전화 등 부작용이 없다.

하지만 여야가 ‘동상이몽’인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규모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부산 회동’에서 안심번호를 받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 투표를 하는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조사 날짜를 언제로 할지, 평일 또는 휴일, 몇시가 좋을

주요 쟁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인단규모	· 완전국민공천제 취지 살리기 위해 최대한 키워야 · 2만~3만명 거론	· 비용 증가 우려 · 300~1천명 적정
조사 시기	· 동시 시행 여부, 평일/휴일 등 시간 조율해야	
투표 방식	· 안심번호 활용한 여론조사만으로 결정	· ARS 및 현장투표 가능
전략공천 여부	· 당내 찬반 논란	· 20% 이내로 제한

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전략공천’ 문제도 걸림돌이다. 각 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다르게 설정하면 특정 정당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역선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도시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초특가 일본여행

#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 비행기로

##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459,000원  
5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츠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츠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층목탑, 다카부타이  
▶ 호텔(기타큐슈 1급호텔)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시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범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루 서인의 연애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토로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일본 소호무역(보타리무역) 탐방단 모집

무안 - 기타큐슈 공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 개설에 따른 소호무역 탐방단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일정**  
무안출발 - 기타큐슈 공항 일본의 3대 아울렛 도수 프리미엄 아울렛 텐진, 캐널시티 등 일본 큐슈의 전통시장 등 탐방

■ 공통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정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편승(다인실) 또는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인원 여행자보험. [특정]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환복 수송

■ 공통불포함사항 상공차지,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 매끈한 다리와 하이힐...발레리노 루이 14세



(129) 발레

지난 주, 광주시립발레단이 공연한 ‘차이콥스키, 그가 사랑한 발레’를 관람했다. 고전 발레답게 남녀 무용수들의 화려한 동작과 특히 발레리노의 중력을 거스르는 힘찬 도약 등 멋진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그간 여성 무용수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발레리노에 대한 나의 편견이 깨지면서 고난도의 테크닉에 더욱 열광했던 것 같다.

사실 무용사에서 발레는 남성의 예술이었고, 최초로 등장한 발레 스타도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였으며, 마리우스 프티파, 미하일 포킨, 발란신 등 발레감독이나 안무가 등 굵직한 획을 그었던 이도 거의 남성이었다. 생각해보면, 야생트 리고(1659~1743)의 작품 ‘루이 14세의 초상’(1701년 작)에서 루이 14세의 얼굴보다는 매끈하고 예쁜 다리에 시선이 집중되었던 것도 어쩌면 발레로 단련되었던 발레리노의 다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이힐을 즐겨 신었던 루이 14세에서인지 화려한 디자인과 구두 장식, 굽의 곡선까지도 신경 썼던 디테일이 느껴진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시기에 시작된 발레를 프랑스 궁정으로 들여와 발전시킨 카테리나 데 메디치왕비에 이어 루이14세는 그 자신이 유명한 무용교사인 보상에게 사사하면서 20년 동안 매일 발레 연습에 힘썼다고 한다. 발레공연도 마련하였는데, 27편의 공연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그 중 ‘밤의 발레’에서 태양신으로 직접 출연



야생트 리고 작 ‘루이 14세’

해 이를 계기로 ‘태양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다. 루이 14세는 발레를 궁중의 연회에서 전문적인 예술로 격상시켰는가 하면 이를 위해 왕립무용학교를 설립했으며 그 명맥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궁정화가였던 야생트 리고는 이 초상화에서 작품 배경의 건축구조, 옷의 풍부한 주름, 빈틈없이 완벽한 회화적 표현 기법으로 태양왕 루이의 제왕적 이미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인물의 이상화와 세밀한 사실적 묘사를 동시에 이뤄낸 이 작품으로 화가는 유럽 전체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17세기 궁정의 많은 귀족들이 리고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싶어 했을 정도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